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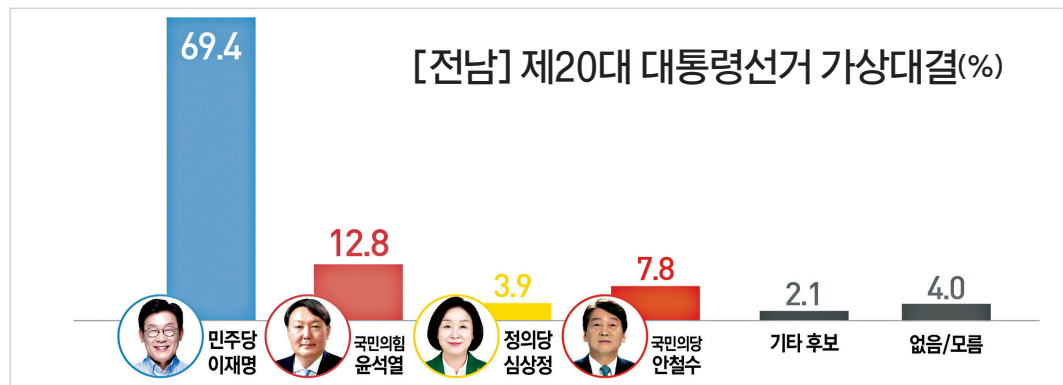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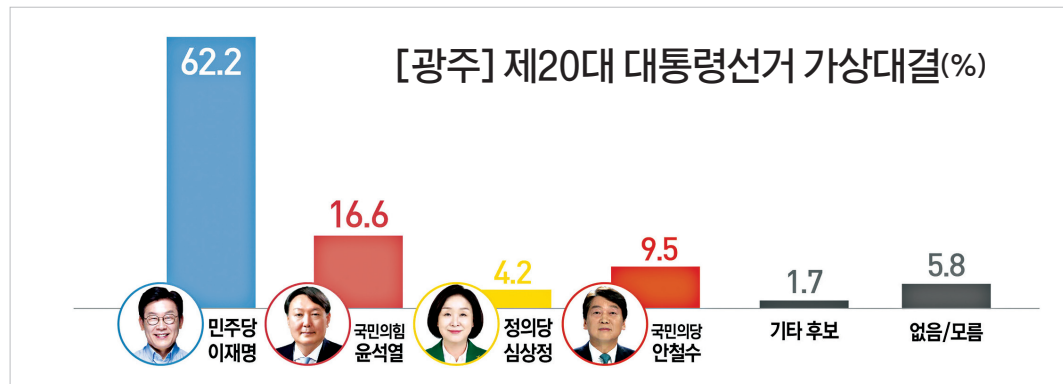
광주시장 선거 '초박빙' ... 이재명 60%대 우세

전남매일·뉴스1·남도일보 공동
대선·지방선거 지역 여론조사

광주, 이용섭·강기정 접전 양상
전남, 김영록 압도적 선두 질주
야권단일화 후보엔 안철수 우위
윤석열, 두 자릿수 지지율 보여
▶ 관련기사 2·3·4면

오는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남매일, 뉴스1,남도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민 대상 대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적합도에서는 이용섭 현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지사 적합도에서는 김영록 현 지사가 압

도적으로 선두를 달렸다.
광주교육감 적합도에서는 이정선 광주교육대 6대 총장이 두각을 나타냈고, 전남교육감은 장석웅 현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전남매일, 뉴스1, 남도일보가 공동으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광주·전남지역 2,000명(광주 1,000명·전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광주의 제20대 대선 가상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2.2%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16.6%)를 크게 따돌렸다.
전남은 이재명 69.4%, 윤석열 12.8%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야권단일화 후보로 응답자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광주 43.7%·전남 43.4%)가 더 적합하다고 봤고, 윤석열 후보는 광주 16.7%·전남 13.6%에 그쳤다.
광주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2%, 이용섭 현 시장 28.3%를 기록해 0.9%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접전을 기록했다. 전남도지사 적합도에서는 김영록 현 지사가 41.4%로 2위인 이개호 국회의원(12.0%)과 큰 차이를 보였다.
차기 광주교육감 적합도에서는 이정선 광주교육대학교 6대 총장이 17.1%로 선두를 달렸다. 지방



문 전 전남대 총장은 10.8%, 박해자 제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10.5%를 기록했다.
전남교육감 적합도에서는 장석웅 현 교육감이 36.2%로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11.7%, 김동환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 9.7%를 크게 앞섰다.
이용섭 광주시장 직무 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46.6%, 부정평가 41.0%로 집계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긍정평가가 63.2%를 기록해 부정평가 13.7%와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25.9%)를 꼽았으며, 전남도민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24.4%)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행정·경제 통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광주 59.3%·전남 64.6%)을 보였다.
장당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광주 63.5%·전남 69.3%)이 국민의힘(광주 15.2%·전남 11.3%)을 크게 따돌렸다.
이번 조사는 전남매일, 뉴스1, 남도일보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월 24-25일 이틀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광주 1,000명·전남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2월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광주9.6%, 전남 10.0%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매일, 뉴스1, 남도일보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5·18 헌법명문화·군공항 이전”

이재명, 광주·전남 민심 행보 “제4기 민주정부 우뚝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5·18 정신’의 헌법 명문화와 군 공항 이전 적극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광주 공약을 발표하며 설명절 앞두고 광주·전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난극복의 주역이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내겠다”며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하고, 분산된 5·18 원본자료와 해외자료를 모두 수집해 통합 관리·연구하는 ‘5·18 국가기록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광주 군 공항을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발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부지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국가 AI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더해 인공지능연구원 설립과 AI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AI기업 맞춤형 종합교육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빛그린산단을 확장한 미래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조성, 광주역·전남대 일대 ‘스타트업 벨리’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린수 스트림’ 구상 지원, 광주 디지털 콘텐츠벨리 조성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공동 공약으로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신속 추진, 광주-화순 구간 도시철도 연장,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기능 확대, 무안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조성 등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도 죽비이자 회초리로서 더불어민주당을 바로잡아 주실 광주”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광주 충장로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을 잇는 제4기 민주 정부를 우뚝 세우고 더 활기차고 잠사는 광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화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방문해 “이런 중대 재해사고를 반복해 일으키는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실종자 가족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렇게 위험하

게 일을 시켜 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됐을 때 치르는 대가가 위험을 방치해 얻는 이익보다 적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중대 재해를 방지하거나, 또는(재해에) 책임 있는 경우는 그 이익을 보는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남구와 함께 내 일(JOB)을 잡(JOB)아 보자!

- 취업상담센터**
 - 취업연계종합서비스 (구인구직등록, 상담, 취업알선)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 일자리박람회**
 - ON-OFFLINE 박람회
 - 맞춤형 취업컨설팅
 - 구인기업정보제공
- 공공일자리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생계안정
 -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광주광역시남구 취업상담센터 062. 607. 2672